해인사 영산회상도 국보지정 기념식

해인사, 2월 18일 성보박물관서
"영산회상도, 조선 전기와 후기
불화 전통 아우르는 주요 작품"

성낙두 경남지사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에게 국보지정서를 전달했다.

1997년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후 30여 년만에 국보로 승격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의 국보지정 기념행사가 열렸다.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2월 18일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 국보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현석 스님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신성범 국회의원, 최만림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김성희 경상남도 경찰청장, 김윤철 합천군수 등 지역 주민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2024년 12월 국가유산 국보로 승격된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1729년에 제작된 것으로, 조선 영조 5년의 화승인 의겸을 비롯해 여러 화승이 참여했다. 특히, 의겸은 18세기 조계산과 지리산을 거점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화승으로, 그의 뛰어난 기량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비단 바탕에 채색으로 그려져 있다.

이날 기념식은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의 헌향, 신성범 국회의원의 헌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의 헌화, 대중헌화, 내빈소개, 인사말, 축사, 국보지정서 전달, 공지사항, 사홍서원, 폐회,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해인사 영산회상도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불화 전통을 아우르는 중요한 작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됐다"며 "이는 단순한 문화유산 지정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와 회화적 전통이 어우러져 더욱 빛을 발하는 중요한 순간임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영산회상도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그 가치를 후대에 고스란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2022년 이곳 해인사에서 두 비로자나 부처님 불상의 국보 지정을 축하해 드렸는데 이번에 국가유산청장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담은 불화의 국보 지정을 축하하기 위해 한 번 더 오게 돼 더 기쁘다"며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해인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청장은 "이번에 지정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회상도를 비롯하여 해인사에 가득한 귀중한 국보와 보물들을 향후에도 잘 보존하고, 관리해주실 것을 믿고 국가유산청도 힘껏 돕겠다"며 "국보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합천군과 경상남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다양한 학술연구를 통해 국보의 가치를 밝혀주신 학계의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해인사와 국가유산청은 이번 국보지정 기념행사를 통해 '합천 해인사 영산회상도'가 국보로 지정되었음을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落火로 재앙은 소멸되고 복 오길"

세종 영평사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정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낙화법을 설행했다.

세종 영평사(주지 광원 환성 스님)는 2월 15일 경내 앞마당에서 '제10회 낙화법(落火法, 불꽃놀이)'과 산사음악회를 진행했다. 낙화법은 숯, 향, 소금을 한지에 만 낙화봉지를 나무에 매단 후, 불을 붙여 재앙을 소멸하고 올 한해의 안녕과 복을 발원하는 불교 전통의식이다. 특히 영평사 낙화법은 세종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대중 2만여 명 이상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저녁 6시 낙화법 시연이 시작되자, 대중들은 흩날리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광경을 보며 각자 마음 속 소원이 이뤄지길 두 손 모았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화엄사, 제5회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최

3월 10~30일 21일간 공모
작품성 · 활용성 · 독창성 평가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오는 3월 10일부터 30일까지 '화엄! 홍매화의 향기를 머금고'를 슬로건으로 '제5회 구례 화엄사 화엄매 홍매화·들매화 프로사진 및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콘테스트에 앞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화엄사는 신라와 백제의 경계에 위치해 1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사찰로,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가진다"며 "신라인과 백제인의 민심을 하나로 모은 화엄사에서 홍매화를 바라보며 현재의 행복을 담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 촬영된 홍매화·들매화 사진만 출품 가능하며 화엄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는 개인당 최대 2장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드론 촬영을 원하는 경우 관람객의 안전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화엄사 측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촬영한 드론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심사는 프로 전문가 부문과 휴대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준은 △작품성(30점) △활용성(30점) △적합성(20점) △독창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동점일 경우 작품성과 활용성 점수를 우선 고려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출품작과 수상작의 저작권은 화엄사와 구례군에 귀속돼 개인이 사용할 경우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상작은 4월 21일 오전 9시 화엄사 홈페이지 및 BBS불교방송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에서 발표된다. 시상식은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린다.

한편, 홍매화 개회식은 3월 22일 오후 1시 30분 각황전 앞마당에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현중순 시인의 〈홍매화〉 시 동판 제막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지리산 화엄문도 합동추모재

2월 13일, 경내 각황전서
역대 선사 추모, 정진 다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2월 13일 경내 각황전에서 '불기 2569년 을사년 지리산 화엄문도 합동추모재'를 봉행했다.〈사진〉

지난해 화엄사는 근래 입적한 문도스님 합동부도탑을 조성하고 매년 정초에 추모재를 봉행하고 있다. 이번 합동추모재는 화엄사의 발전과 선대스님들의 뜻을 이어가는 의미가 담겼다.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은 "합동추모재는 화엄문도의 화합에 큰 의미가 있다. 모두 수행정진에 힘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은 "우리 문중은 역대 조사스님들과 큰 본사에 의지해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며 "후배들을 양성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라"고 전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난 8년여의 임기를 회향하며 "여러 어른 스님들과 대중스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다"며 "화엄사의 가풍인 화합과 자비, 인욕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수행정진에 진력하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선사, 정월방생법회…자비실천의 현장

2월 15일 보은 법주사서
메기 2천여 마리 방생해



서울 도선사 사부대중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생명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서울 삼각산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2월 15일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 일원에서 '도선사 정월대보름 방생법회와 합동천도재'를 설행했다.

이날 방생 법회에는 도선사 신도 900여 명이 동참, 도선사 신도회(회장 김학규)가 준비한 메기 2000여 마리를 방생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추운 한겨울에도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불자들의 마음이 가득한 오늘, 이 공덕으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며 "방생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생에 참여한 한 신도는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불자가 한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쌓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귀신사, 사경특별법회서 수행담 나눠

2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서
지역 대학생에 장학금 전달도



김제 귀신사(주지 무여 스님)가 2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사경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사경법회를 지도한 무여 스님은 "현재 사경법회에 동참한 84명을 비롯한 불자들은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사진을 올리는 등 서로 사경 정진을 독려해왔다"며 "사경 수행만으로도 큰 공덕을 이루는 것이니, 지금부터라도 동참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날 무여 스님은 이종민 학생 등 대학생 5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북불교환경연대에도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하며 활동을 응원했다. 전달된 장학금과 후원금은 입춘기도에 동참한 신도들의 기도비로 마련됐다.

법회 후 동참 사부대중은 설법전으로 자리를 이동해 사경 수행에 대한 수행담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불교조계종 을사년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대봉스님)이 을사년 신년을 맞아 2월 16일 문경 성보촌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스님은 "모든 중생은 진실한 우주 참 진리와 행복의 실체를 깨우침으로써 진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을 위해 자기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가치인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불교연합회 을사년 신년하례회 봉행



창원불교연합회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을사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사진〉

2월 18일 창원컨벤션센터 1층 연회장에서 봉행된 신년하례회는 창원불교연합회 법안 스님(성주사 주지)을 비롯한 지역 사찰 스님들과 이상연 창원불교연합회 총신도회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불교계 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이날 신년인사에 앞서 열린 창원불교연합회 총회에서는 성주사 법안 스님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연임이 확정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불교대, 불교학과 및 법사과 졸업식 봉행



사단법인 부처님세상(이사장 백준기) 부설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2월 16일 교내 4층 큰법당에서 '제37회 불교학과 및 제32회 법사과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졸업식에서는 권순호 불교학과 37기 학인을 포함한 44명과 김석철 법사과 32기 학인을 포함한 17명, 총 61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창구 학장은 "졸업이 단순한 학업의 마무리가 아니라 마음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인격을 불격으로'라는 학훈을 되새기며 부처님 법을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장정사 불교대학 5기 졸업식 개최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정사 불교대학(학장 현우 스님)이 2월 19일 경내 2층 대법당에서 제5기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5기 졸업생은 총 7명이며, 졸업생들은 운영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삼았다.

학장 현우 스님은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실천의 시작이다. 배운 가르침을 일상에서 적용하며 부처님의 법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주 수현사 불교대학 7기 졸업식 봉행



금산사의 전주혁신도시 포교당 수현불교대학(학장 응묵 스님)이 2월 16일 관내 3층 큰 법당에서 7기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남준희 불자를 비롯한 24명이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걸음마 불교학당의 조형준 불자 등 5명이 수료했다.

수현불교대학 학장 응묵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지난 7년을 돌아보면 우여곡절의 시간이었다"며 "수현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학장을 맡았다. 앞으로 교구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국노인복지회 독거어르신 위한 나눔 잔치



한국노인장애인복지봉사회 전북지회 전주시지회(회장 정인 스님)가 주최하고 JG그룹이 후원한 '설날맞이 나눔의 잔치'가 2월 13일 JG그룹 사무실에서 개최됐다.〈사진〉

행사에서는 암 환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0여 명에게 45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전달됐다. △특차스코 침향단 △산양산삼 △보호대 세트 △쌀 △라면 △프로폴리스 치약 △숯 칫솔 △기념수건 △스마트 인삼파스 △천년초 등이다.

정인 스님은 "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